



교시

진평자 리화유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발행소: 전주시 효자동 3가 1200번지
전주대신문사
전화: 편집국 220-2442
운영실 220-2441

발행인격 편집의 이종익 / 주간 임한석 / 편집국장 최경주 (1986년 8월 27일) / 구독부 등록 다-410 / THE JEONJU UNIVERSITY PRESS 1996년 9월 16일 (월요일) [주간] 제 496호

지/면/안/내

- ② 대학의 환경보호와 비뚤어진 양심
환경보호는 큰 일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내 곁에 있는 휴지조각 하나라도 줍는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는 바회완총무처장의 글을 신는다.
- ③ 연세대 사태 이후 정세변화와 민주화운동의 과제
지난 9일 늦은 7시 동학혁명기념관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와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의회 공동주최로 공안책들 저지와 학원 자유수호를 위한 민교협 시국대토론회가 열렸다.
- ④ 신분카드 사용자 유의점
카드가 일변화되면서 무절제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아 그 보완책이 시급하다.
- ⑤ 언론의 기능과 역할
연세대사태 이후 언론은 많은 편파보도를 일삼아 왔다. 대학신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알렸으나 편집국장이 권고사직에까지 이르게 됐다.
- ⑥ 호남의 금석③-태조 이성계의 발길따라 조선의 창업과 몰락
'황산대첩'을 통해 조선 개국의 기운이 감돌고 정몽주의 충절기가 새겨진 남고산성 일대를 글씨를 통해 조선의 창업과 몰락의 현장을 찾아가 본다.
- ⑦ 학술문화 체육 한마당 오늘 만들어 판국 '짬뽕'은 가라 강령 탈출공전 및 취업경쟁회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학내 곳곳에서 열린다.
- ⑧ 삶이 담긴 책 -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금줄없이 태어난 세대를 위한 우리문화의 길잡이'라는 길 제목처럼 서구문화에 놀라 외면당하던 우리문화에 눈을 뜨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복수전공 전면 실시

96학년부터 내년 시행... 학점관계없이 전 학과에서

35~42학점 이수... 제2전공 인정

수업내함을 5년으로 연장해야 가능했던 기존의 복수전공제도도 오는 97년부터는 최소전공인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정규 수업내내에 이수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어 오던 신고육제 교육과정 개편은 그동안 학사연구위원회와 단대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20일 교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 개편내용은 복수 전공의 활성화와 학생들에게 적성, 진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점학문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수업제 이종원계장은 밝혔다. 또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최소전공 인정학점제 도입, 특성화·차별화를 위한 교과 편성, 세부화된 심화과정 보다는 다양한 포괄적인 학부형태의 교과과정으로 개편할 방침이다"라며 학부 및 연계교과 운영, 중간평가제 활용을 위한 실험·실습등의 교충식 강의 교과목 검토 등"이라고 밝혔다. 우리대학의 신고육제 교육과정의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수전공은 성적에 관계없이 전계열·전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사범계열은 교육부(인)이 미련된 때까지 실시를 유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 졸업학점 기준을 연평균 같이 전 계열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 그중 35~42학점을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제2전공으로 인정되며 개설학점은 87~105학점 사이로 하고 전공과목 수, 패급 기준도 원학과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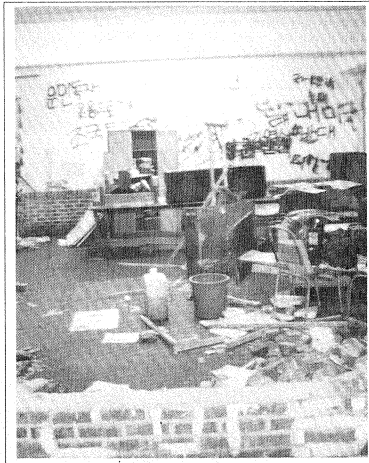
복수전공은 제2전공 학과와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기는 3학기 등록 후 2학년 1학기때부터 해당학과와 특성학에 따라 학과장에게 상담기준 결정일이 있다.

복수 전공이수 인원 또한 복수전공학과장이 결정하며 모집정원이 비백미이한 학과는 모집정원의 30%, 백미이한 학과는 모집정원의 20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복수전공을 신청하지 않고 타학부의 전공과목을修的 수강하였을 경우, 또는 중도포기할 경우에는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 비사범계열의 학생이 교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영역을 42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신고육제 교육과정은 97년부터 실시하며 96학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최정주기자)



캠퍼스 라이프

모두 차렸! 사과대 공사 기간중에 지하의 동아리 방의 내용물이 아무렇게나 출어져 있다. (글·사진 사진부)

보도단신

도서관 대출시간 7시까지 연장

도서관(관장:안태환)의 책 대출 시스템이 학생 카드 사용으로 변경되었고 대출시간은 2시간가량 연장되었다.

도서관 대출 시스템 변경은 윤 여권장에게 설치한 바코드 장신과 직원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장신과 직원은 1월과 2월 사이에 장신과 직원을 지출하여 한달은 연체로 표시도 나온다.

한편 도서관 대출시간 연장은 기존의 9시부터 4시30분까지의 대출시간이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2시간 가량 연장되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실행된 것으로 대출시간을 연장하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생회가 여유롭게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는 18일 동진공채유명설명회

취업개발실(실장:김윤선)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능이론 진공과사 채용 설명회'를 오는 18일 취업개발실 및 취업자료실에서 개최 예정이다.

취업개발실의 초빙으로 이루어진 이번 채용 설명회는 능이론 진공과사 채용전 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시험과목 등 여러가지를 간략히 예정이다.

오는 18일 11시부터 시작된 이번 채용 설명회는 취업자료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다면 멀티미디어실이나 다른 곳으로 당일날 장소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개발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는 능이론 진공과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개발실에서 주최하는 취업 설명회는 학생들의 요청도가 낮아 강사들이 오지 않으려 한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취재부)

무란잡기

▲학교 안에서 길을 걷다 보면 차량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을 우리는 한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일부는 "차가 변칙이 사람이 먼저"라며 부당하다는 시합도 있고 일부는 지나가는 차량이 다가오도 모르는 차 아예 비켜 주지 않는 배짱도(?)도 있다.

그만큼 우리 학교는 차량에 대한 관대한 태도(?)때문에 그 피해는 다수의 학생들에게만 돌아간다.

▲우리에게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는 차량문제가 2학기가 되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줄어다니조차 힘들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정문 수하실 직원의 발을 들어보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문 수하실 직원은 원래 9시에의 고정 차량의 고배에 왔다가 가는 차량 1백여대에만 지난 학기보다 2학기에 10%정도 더 늘어났다.

이 수치는 차량 문제에 관한 한 늘어난 상층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욱 불러일으킨다. 그 동안 학교에서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차장을 늘려 왔지만 이는 무용지물이 될 때까지 처했다.

▲차량 문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이 지나가면 학교에 차량을 물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차 때문에 나 무서워요"

대중을 주차장은 일반화했다. 아무 곳이나 주차해 놓은 차량에 단속은 커녕 주의조치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단속을 한다면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차량과 오르내리만 막을 뿐이다.

그러나 단속 및 학생회관의 주차 단속이 커져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차량으로 인한 소음은 아무 말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다른 대화도 들어만 가는 차량 이용자를 때문에 주차장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어떤

대학은 차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 및 학생들에게 티켓을 발급해 운전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차량을 정문에서 원할 통과하는 과제도 있다.

▲차량 문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이 지나가면 학교에 차량을 물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차량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도모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가끔씩 '단체조차 지나가기가 무서워'란 말을 흘리곤 한다. 그만큼 차량문제가 대단한 다수의 학생들의 이익 있는 현행일 것이다. (김두원기자)

수습기자 모집

미래에 도전하는 새내기를 찾습니다

나만의 '전공 선택'

한정된 커리큘럼 안에서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없다!! 성적표엔 기재되지 않지만 인생 이력서에 커다란 느낌표가 남을 생활들. 조금은 바쁜, 조금은 힘든 일상에서 숨겨졌던 진정한 '나'를 찾아보자 바로 이곳 대학신문사에서...

글썩서 보다는 열정있는 96학번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학생회관 3층으로 지금 발걸음을 돌려주세요.



'뿌리'를 이어가는 새내기 모집

제 28기 수습기자

- ▶ 모집대상 : 96학번 00명
- ▶ 모집부문 : 취재, 사진, 만화 (컷)
- ▶ 모집일 및 전형일시 :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 ▶ 전형방법 : 면접
- ▶ 원서접수 및 전형장소 : 전주대 신문사 편집국 (학생회관 3층 지리관 앞)



전주대신문사

